



▲한국휴케어기술문화학회가 지난해 11월말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말 대전에서 이색적인 학술단체가 발족했다. 한국휴케어기술문화학회(회장 김동화·한밭대 교수)다. 목적은 한국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분위기 창출, 정책입안자로서의 참여 등이다. 목적만으로 보면 다른 과학기술학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방식은 다른 학회와 다름을 표방하고 있다. 우선 인적 구성이 다르다. 과학기술인들이 대다수인 다른 학술단체와는 달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인은 물론 문학, 예술, 인문, 철학, 경제 등 모든 영역의 인사들을 아우른다. 나아가 일반인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한밭대 김동화 교수를 중심으로 충북교원대 송기상 교수, 전주대 이영재 교수, 아름다운 세상 신천식 회장 등 교수, 정부산하재단, 기업 CEO와 같은 전국 각 분야 인사들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아침에 모임을 여는 것도 독특하다. 매달 둘째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모여 조찬모임으로 진행된다. 형식은 포럼이다. 초청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다. 대전에서 진행되는 조찬 모임은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럿 있지만 학술단체가 아침에 포럼을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포럼은 진행해왔다. 학술단체로 정식 발족하기 전 부터다. 포럼을 진행한지도 어언 1년이 다됐다. 규모가 커진 만큼 학술단체로 정식으로 발족하며 외연을 넓힌 것이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김대중 정권 시절 여성부차관을 지낸 행정가는 물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등 쟁쟁한 인사들이 나서 강연을 펼쳐왔다. 발상의 전환점에서 본 행정서비스의 개선방향, 미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등이 주제였다.

어제는 유성호텔에서 오후 6시 30분에 신년축하라는 타이틀로 ‘11회 포럼’을 열었다. 신년 들어 첫 포럼인데다 학술단체로 출발을 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열리는 행사여서 특별히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권기균 과학관과문화 대표(한국창의재단 이사)가 초청강사로 나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뒤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다양하게 마련해 놓았다. 조직은 지역별, 분야별, 직장별로 나눠 활동 희망자로 꾸리고 각 조직별로 대표를 뒤 소모임도 활성화할 생각이다. 활동은 이메일이나 인쇄물로 된 소식지 발간과 함께 외국의 전문 학술지와의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외국의 저명 과학문화단체와도 공동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화 회장은 “휴케어기술문화학회는 과학, 문화, 예술, 철학, 경제 등 각각의 영역을 사람중심으로 묶어 융합하고자 마련한 학술의 장”이라며 “그동안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소통이 잘 안됐던 만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아이디어를 찾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0.1.14 대전일보 최재근 기자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 0 | 위인글 0

이 글을... (0)

닉네임

비밀번호

내용

☐ 텍스트콘 ?

등록

▪ 대전시청 하늘마당 공연도 관객도 ‘업’ /대전예술소식	2010-01-14 10:14:19
▪ 대전 공연 기획사 ‘발레서커스’ 새 장르 개척 /대전예술소식	2010-01-14 10:13:53
▪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 /대전예술소식	2010-01-14 10:13:08
▪ [2010새해설계]문화예술계 단체장 /대전예술소식	2010-01-13 10:54:57
▪ 대전 가보갤러리·갤러리쉴, 대형 작품 전시 높은 완성도·소장가치 높아 컬렉..	2010-01-13 10:53:07

